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average person spends between 3 and 5 years of their lives waiting. Waiting to be served at the shop, waiting on hold on the phone, waiting at the traffic lights, waiting for the train or bus, waiting to see the doctor and so on. Add it all up and it can apparently take up to 5 years of our lives. There is, however, a sense in which Christians spend all their lives waiting. We are waiting for our hope to arrive in full – the vibrant, wonderful future God has in store for his people. It is a glorious hope of inhabiting a new perfect creation with our resurrected, imperishable, Spirit-controlled bodies. It will be a place of righteousness, peace and rest created for, ruled over by and united under Jesus Christ. Last time we saw that our hope will finally arrive when Jesus returns as judge of all the earth – at which time the present creation will disappear in a roar, and new heavens and a new earth will be ushered in.

사람들은 사는 동안 평균 3 년에서 5 년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며 보낸다고 추정됩니다. 가게 직원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전화 연결을 기다리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기차나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등등. 이 모든 시간을 합하면 우리의 인생 중 5 년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들은 모든 인생을 기다리며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부활된, 불멸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의와 평화와 쉼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예배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 그때에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올 것입니다.

We certainly, as Christians, have an incredible eternal future ahead of us! But what should we be doing **NOW** to prepare for it? Is there anything we can be doing to get ready for when our firm and secure hope becomes reality? How do we wait well for Jesus' return?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하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확실하고 견고한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될 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강림을 어떻게 잘 기다릴까요?

Jesus told two parables which help us to answer this question – the parable of the wise and foolish virgins (Matthew 25:1-13) and the parable of the talents (Matthew 25:14-30). Both parables focus on a sudden visit that exposes two types of people – those who have waited well for the visit and those who have not. At first reading it might seem as if one parable would have been enough to get the message across. But Jesus always chooses his words carefully and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rables. In particular, in the first parable, the two groups of virgins are described as being either “foolish” or “wise”. In the second parable, the two types of servants are described as being either “wicked and lazy” or good and faithful”. This word choice is worth pondering, as it takes us to the heart of what it means to wait properly for Jesus' return and the arrival of the new creation.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비유 (마 25:1-13),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 25:14-30). 이 비유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두 종류의 사람들이 – 잘 기다린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 드러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비유 하나로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충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하시고 또 이 두 비유들 사이에는 중요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첫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처녀들은 ‘미련한 자’ 또는 ‘슬기 있는 자’로 설명됩니다. 두번째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종들이 ‘게으르고 악한 종’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명됩니다. 예수님의 강림,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제대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핵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단어선택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1. Wise Waiting

As we saw at the last Combined Service in March, the wise virgins were those who thought through the possibility of the bridegroom being delayed and so took extra oil for their lamps. They planned ahead, looked to the future and made their decisions accordingly. Wise waiting for Jesus' return is the same. The wise follower of Jesus looks to the future, appreciates that their eternal inheritance is in the new creation and therefore shapes their plans and priorities accordingly. Elsewhere in the Gospels, Jesus describes this as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Matthew 6:33). Waiting wisely involves training our minds and focusing our thinking so that our behaviour is appropriate. It involves spending time in the Bible and aligning our minds with the mind of Christ. It involves thinking beyond this world to the world to come. And it affects every area of our lives – how we treat our spouses, how we raise our children, how we choose our friends, how we weigh up ideas and make decisions, how we spend our money, how we conduct ourselves at work, how we use our free time and so on. In all these things we ask ourselves, “How is this action shaped by my hope in eternity and the new creation?” Testing everything we do in this way i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foolish and being wise as we wait for Christ's return.

지난 3월 연합예배에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등을 위한 기름을 더 준비해 간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을 생각해 미래를 알맞게 계획 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은 미래를 보고, 그들의 영원한 유산은 새로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이것에 맞춰 만들어갑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 6:33).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생각을 집중해서 우리의 행동이 적절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과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넘어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친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 – 영향을 끼칩니다.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생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이 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것이 미련하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과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 2. Faithful Waiting

Jesus' parable about the servants and the talents focuses on quality of action – being faithful or slothful. “Slothful” is the word that the ESV translation uses (the NIV uses “lazy”) – and it is wonderfully vivid. If you've seen a sloth in the zoo you can picture a slow-moving mammal, sluggishly plodding along a branch – heavy, dull and listless. It is not how any of us want to be described. In Jesus' parable, the slothful servant is contrasted with the two faithful servants who each invest their master's money in order to further add to his wealth. These servants are a picture of diligence, creativity and useful service. And this is how we are to live as servants of Christ as we wait for his return. We strive to be productive and effective for the arrival of our master. It is for this reason that Paul speaks of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and “pressing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3-14).

종들과 달란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행동의 질에 – 충성 되었는지 게으른 지 – 초점을 둡니다. “나태함” (slothful) 은 ESV 번역본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NIV 는 “게으름”을 사용함) –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만약 동물원에서 나무늘보(sloth)를 본 적이 있다면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이 느릿느릿 나뭇가지를 타고 가는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무겁고 둔하고 무기력하게 말입니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싫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나태한 종은 주인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주인에게 부를 더해준 다른 두 종들과 비교 됩니다. 이 종들은 성실함과 창조성과 유용한 봉사활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오는 것을 대비해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길 노력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 3:13-14).

The New Testament provides lots of insights as to how we can go about doing this. The passage we read from Hebrews 10 (vv.19-25) is helpful in this regard. It begins by reminding us of the confidence we have before God because of Jesus Christ, the perfect priest, who makes his people perfect by offering the perfect sacrifice for their sin. Two particular activities follow as a result of our “full assurance of faith”, namely, we strive to stay loyal to Jesus ourselves, and we strive to help others do the same.

신약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 (vv.19-25)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만드신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결과로 두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충성되어 있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a) Staying Loyal to Jesus

The writer of Hebrews urges his readers to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v.23).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God is faithful to us should cause us to be faithful to him all the more. Since God will never let us down, it would be crazy to let go of him and drift away. So the thought of giving up on Jesus is not an option. Similarly, laziness towards Jesus – not an option. Indifference towards Jesus – not an option. Disobedience - not an option. The stakes are too high for any of these things to be options. For our goal is to live and reign with Christ in the new creation (2 Timothy 2:11-13).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독자들을 독려합니다 (23 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을 향한 게으름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관심 –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불순종 –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선택사항이 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세상에서 살며 왕 노릇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딤후 2:11-13)

The motto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is “semper fidelis”, Latin for “always faithful”. What a powerful slogan. Always faithful. Not sometimes faithful. Not usually faithful. Not even mostly faithful. Always faithful. No mitigating circumstances. No escape clauses. No excuses. It doesn't matter if it's inconvenient. It's irrelevant whether or not I gain personal happiness. I reckon it's a great slogan for us as Christians. We are always faithful to our master. We stick with Jesus through thick and thin. We persevere and never give up even when the going gets tough. Why wouldn't we keep going? He has reserved a place for us in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and on that last great day the words we are longing to hear ar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3).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미국 해양 경찰의 모토는 “semper fidelis”, 라틴어로 “언제나 충성” 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슬로건 입니다. 언제나 충성. 가끔씩 충성이 아닙니다. 보통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충성. 경감 사유도 없습니다.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변명 할 수가 없습니다. 편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을 얻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 언제나 충성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좋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인내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에 우리 자리를 예약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엄청난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마 25:23).

(b) Helping Others Stay Loyal to Jesus

The writer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doesn't simply urge us to stay loyal to Jesus ourselves – he also urges us to help others do the same. In the passage from chapter 10 he talks about “stirring others up to love and good deeds, not neglecting to meet with others, and encouraging one another” (vv.24-25). These are all important things to be doing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v.25). Helping each other to remain devoted to Jesus is part and parcel of being a productive, faithful servant as we wait for the new creation.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자신만 예수님께 신실 하라고 권면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독려합니다. 10 장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라고 말합니다 (24-25 절). 이것들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해야하는 중요한 것들 입니다 (25 절). 항상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은 새 세상을 기다리는 생산적이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의 큰 부분입니다.

This solidarity with other Christians is underpinned by something we saw back in our February Combined Service, where we discovered God's goal of uniting all things under Christ. Because we share this future hop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therefore live it out now. Sharing the same hope – the same eternal destiny – means we are eager to maintain unity with each other and we take seriously the role of helping each other (Ephesians 4:1-6). This elevates the importance of Christian fellowship and sharpens the focus of what we do when we get together, doesn't it? Christian fellowship is much more than having cups of coffee, showing hospitality and being friendly to one another. Real, productive Christian fellowship keeps Christ central by seeking to strengthen each other's relationship with God. It involves talking about Jesus with each other and meeting together to read God's word and to pray. It involves caring for each other deeply and especially making sure that none of us fall away. When life is hard, real Christian fellowship helps us stick with Jesus.

이처럼 다른 크리스천들과 결속되는 것은 우리가 2 월 연합예배에서 본 것,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것을 연합하실 하나님의 목적, 이 뒷바침해 줍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같은 소망을 – 같은 영생의 운명 –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단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엡 4:1-6). 이것은 크리스천간에 교제의 중요성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의 교제는 커피를 마시고, 손님을 대접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진정한, 생산적인 크리스천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서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며 아무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진정한 크리스천의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c) Helping Others Become Loyal to Jesus

A faithful servant of Christ will also be urging unbelievers to repent and believe so as to become loyal to Jesus Christ, before it's too late. As we saw at the last Combined Service, it is only because of God's patience that Jesus hasn't returned yet. God is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2 Peter 3:9).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고 권면 합니다. 지난 연합 예배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벧후 3:9).

In the Old Testament, Isaiah wonderfully described God's punishment of Judah as a "strange" work and an "alien" task - that is, punishment is a foreign thing for God to have to do. He is in fact "a gracious and compassionate Go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God wants people to be saved. He sacrificed his only beloved Son in order for that to happen! The implications for the faithful servant of Christ are obvious. If the only reason Jesus has not returned yet is so more people might reach repentance then it's not too hard to imagine what we should be doing while we wait. We need to be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 everyone who will listen to us so that more people might come to repentance!

구약에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벌을 "비상"한 일, 그리고 "기이"한 사역 이라고 설명 합니다 - 이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벌을 내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 주셨습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할 일은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 기울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Godly Waiting

Notice that in the parable of the tenants Jesus declares the productive servants not only as "faithful" but also as "good". Correspondingly the lazy servant is also referred to as "wicked" (or "evil" in the ESV). Surely it is an indication that waiting well for Jesus' return involves personal godliness. This is reflected in Paul's letter to Titus in which he exhorts believers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while we wait for the blessed hope -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ur, Jesus Christ" (Titus 2:12-13). Peter says a similar thing in chapter 3 of his second letter as he speaks about the Day of the Lord; "Since everything will be destroyed in this way,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You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ts coming. That day will br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heavens by fire, and the elements will melt in the heat. But in keeping with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ward to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home of righteousness" (vv.11-13). Notice the link between living righteous lives now in preparation for a place of righteousness to come. Peter is reminding his readers (including us) that waiting for the new creation involves living out now who we will be in the future. Perhaps an illustration will help to understand this.

종들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생산적인 종에게 "충성"됐다고 했을 뿐이 아니고 "착한" 종이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이와 맞게 게으른 종은 "악한"종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령을 잘 기다리는 것에는 개인적인 경건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권고한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나타납니다 (딤후 2:12-13). 베드로는 그의 두번째 편지 3 장에서 주님의 날에 대해 말할 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1-13 절). 의가 있는 곳에서 살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연결됨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독자들 (우리 포함) 에게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것은 미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찌면 예를 드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

Prior to Queen Elizabeth II, Queen Victoria held the honour of being the longest serving British monarch in history. For 63 years she reigned over the powerful British Empire. One of the reasons why she was queen for so long was that she took the throne when she was only 18 years old. Actually, given the health and age of the rest of the royal family, it was pretty clear even when she was a baby that Victoria was going to become queen at an early age. However, it was decided that she would not be told this until she was 10 years old. And even then she was not told directly – she was to discover it for herself in a history lesson. Apparently during one lesson, Victoria discovered a page in her textbook that had been purposefully removed up until then, but which had now been deliberately replaced. It was a page that listed the line of succession to the British throne. According to her governess, Victoria noted with surprise that she had never seen this page before and – with much greater surprise – realized that it was she who was the next in line to the throne. When her governess confirmed the obvious – that Victoria would one day be queen of the massive British Empire – Victoria reportedly responded, “I will be good.” It’s a remarkable thing for a 10 year old girl to say. But having realized the high position she would inherit in the future, Victoria decided to live accordingly in the present. Because of who she was and who she would become, she chose to behave appropriately. This is exactly how the New Testament describes the Christian lifestyle. Because of who we are in Christ and what we look forward to as our hope, we behave appropriately. Our hope spurs us on to lives of godly obedience. We live righteously in this life, in anticipation of the next life on a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reigns.

엘리자베스 2 세 여왕 이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63 년동안 강력한 대영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18 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머지 왕족들의 나이와 건강을 봤을 때 빅토리아가 아기였을 때부터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어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0 살이 될 때 까지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도 직설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역사 수업을 통해 직접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없었던 페이지가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을 역사 수업시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영국의 왕위 계승을 나열해 놓은 페이지 였습니다. 가정교사에 의하면 빅토리아는 이 페이지를 본 적이 없다고 놀랐고, 다음에 왕위에 앉게 될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가정교사가 빅토리아가 언젠가는 아주 큰 대영제국의 여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자 빅토리아는 “나는 잘 할거야”라고 대답 했다고 합니다. 10 살짜리 여자아이가 하기에는 놀라운 말입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미래에 물려받을 높은 자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자리에 알맞게 현재에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신분과 미래의 위치에 알맞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걸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의로 다스려질 새 땅에서의 다음 생을 기대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We strive for godliness now, not to earn a place in the new creation but because we have already graciously been given a place there. This is what the apostle John was talking about in the passage we read from 1 John 3. We will be like Christ in the new creation. We will be holy as he is holy. We’ll no longer be enslaved to the cravings of a sinful nature. Rather we’ll have that “spiritual body”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Paul talks about in 1 Corinthians 15 – we will be fully energized by God’s own Spirit. John’s point is that since we will be pure as Jesus is pure, we therefore purify ourselves now. We live out now who we will be. Or as Queen Victoria put it, “I will be good”.

우리는 현재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은혜로 새로운 세상에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지, 그곳에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 장의 구절에서 요한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거룩하듯이 거룩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성의 종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대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말하는 “영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요한의 요점은 우리가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 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되어질 모습대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또는 빅토리아 여왕이 말했듯이, “나는 잘 할거야”.

#### 4. Knowing Jesus

Finally, notice the relational aspect reflected in these two parables. The foolish virgins are excluded from the reception because of the bridegroom’s declaration,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Matthew 25:12). Similarly the wicked, lazy servant claimed to know the ways of his master (Matthew 25:24), but his actions betrayed the fact that he didn’t really know his master at all (Matthew 25:25ff). The people who didn’t wait well were the ones who didn’t really know the person they were waiting for.

마지막으로 이 두 비유에 나타난 관계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한 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때문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 25:12). 비슷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안다고 했지만 (마 25:24), 그의 행동은 그가 주인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 25:25).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이었습니다.

What might this say about our preparations for Jesus’ return and the coming of the new creation? Are you being productive for your Lord and Master Jesus Christ? Are you busy and eager to care for othe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re you living a holy and godly life in anticipation of life in the new creation, the home of righteousness? Are you living in light of your Christian hope? If you’re not, the real worry is what that says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When the end of the ages does come, your house, your car, your career, academic achievements, awards, sporting trophies, furniture, electronic gadgets and other material possessions will all disappear in a roar. All we will be left with is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새로운 세상을 기다림에 대해 어떤 것을 알려줄까요? 여러분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산적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열심입니까? 의의 세상인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의 소망 안에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것을 알려주냐 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여러분의 집, 차, 직업, 학업, 상, 운동 트로피, 가구, 전자기기, 또 다른 물질적인 재산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 없을 것입니다.

Paul’s testimony was that everything else is a loss, rubbish, compared to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Philippians 3:8). If you don’t know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then you can’t expect to live a holy and godly life, for, as Paul makes clear in his letter to Titus, it is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tha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while we wait for the blessed hope –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ur, Jesus Christ” (Titus 2:12-13).

(Matthew 25:1-30; Hebrews 10:19-25; 1 John 3:1-3)

The grace of God in Jesus motivates and enables us to live under the Lordship of Jesus, to live in the light of our Christian hope. If you don't know the grace of God in Jesus Christ, then you don't really know Jesus and have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that is the heart of the gospel, the core of the Christian faith. If that is the case in your life, then I urge you, plead with you to seek Jesus in all his truth and grace, receive him as your Saviour and Lord, by faith.

바울의 간증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빌 3:8)” 이것에 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딤후 2:12-13).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아래서 살고 우리의 크리스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지를 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크리스천의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면, 모든 진리와 은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If we know Christ Jesus our Lord, then he is our constant confidence and constant delight – the centre of our worship, the centre of our gratitude, the centre of our love, the centre of our hope. And, as a result, we are looking forward to his return and waiting well for it, expectant of his warm reception with the words,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welcome to your true home!”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는 우리의 변함없는 신뢰의 대상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 우리의 예배의 중심, 감사의 중심, 사랑의 중심, 소망의 중심.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진정한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게 됩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